

농어촌 기본소득 실효성 높인다 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우뚝

장수군, 농식품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전국 10개 지자체와 시범사업 협력체계 구축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도입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앙정부·전문기관·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전국 10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이사항,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10개 군 군수, 해양수산부, NRC농촌기본사회연구단과 관할 광역 지방정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공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전문기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후반에는 농식품부와 경인사연, 10개 참여 군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의체 출범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이 진



장수군은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국 10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되며 공동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 지자체 간 사례 공유와 공동 연구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대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며 "장수군은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해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올해 판매액 209억원 '역대 최대'

진안군은 30일 지역화폐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 올해 역대급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의 총 판매액은 20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총 판매액인 134억 원보다 무려 약 59%인 75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지류 상품권 145억원, 카드형 상품권 64억원이 판매됐다. 특히 실제 결제되어 시중에 유통된 금액만 186억원(지류 133억, 카드 53억)에 달해 고물가 시대에 침체된 지역 골목 상권에 강력한 온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진안군의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있다. 군은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 채택이 돌아가는 캐시백 제도를 도입했다.

정책 변화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고, 명절 및 축제 기간과 맞

물러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단순히 '발행'에 그치지 않고 '사용'을 유도하는 스마트한 운영 전략이 통한 셈이다.

특히 '카드형 상품권'의 성장세도 눈부시다. 작년 1,769명에 불과했던 카드 가입자 수는 올해 4,346명으로 급증했다. 1년 만에 가입자가 약 2.5배 늘어나며, 카드 상품권 중심의 운영 확대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카드형 상품권은 부정유통 예방과 발행 비용 절감 효과가 커, 군은 앞으로 모바일 및 카드 결제 환경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동력 삼아 2026년도 발행 목표 금액을 230억원으로 상향 확정했다.

명절과 주요 축제 기간에 맞춰 특별 할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소비 촉진 효과가 입증된 캐시백 형태의 추가 할인'을 실시해 군민들의 체감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 선정

진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억 7,000만원(연 9,000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이번 공모사업은 2025년 7월에서 2026년 6월 까지 창단했거나 창단 예정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대회출전비, 훈련장비 구입비 등의 예산을 최대 3억(3년 분할)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2026년 1월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여자) 창단 준비를 위해 감독(1명) 및 선수(4명) 영입을 마치고,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이번 공모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12월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차 PT 발표에 참가해 14개 기관·단체가 경쟁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진안군을 포함한 6개 기관·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실적과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통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 노력 등 지역 물가안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수군은 올해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을 동결하며 가계 부담 완화에 힘썼다.

특히 경기 변동과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군민 생활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8개소 추가 지정해, 지역 내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과 소상공인 상생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여기에 명절과 피서철, 지역 축제 기간에는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리 활동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상권 전반에 건전한 가격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태권도원 방문객 34만2000명 돌파... 역대 최대

2025년 한 해 동안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이 34만 2천명을 넘어 역대 최대 방문객이 찾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29일을 기준으로 한 태권도원 방문객 수는 내국인 31만 1천 명, 외국인 3만 1천 명이다. 2024년과 비교하면 내국인은 11% 증가했고, 외국인은 78% 증가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에는 태권도 체험 여행 상품인 '태권스테이'가 성장을 주도했다. 올해 태권스테이 참가자는 7만 1천명으로 힐링태권체조와 태권 운동



회, 여름 물놀이 축제, 보름달 맞이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참가자 만족도에서 5점 만점에 4.5점이상을 기록하는 등 태권스테이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

객들에게 태권도 문화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권도원은 태권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로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과 '2025년 웰니스 여행지'로 선정되는 등 특별한 여행지로 평가 받았다. 이와 더불어 2025세계태권도그랑프리 챌린지 대회 개최, 태권도 선수 전지훈련,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 운영 등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방문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업 관련 사업 안내 책자 제작·배부

무주군이 '2026년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책자 6천 부를 제작·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무주군 농업 관련 부서(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인구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시범)사업 및 주요 업무,

변화된 농정시책 등을 담은 안내서로, 무주군은 지난 26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에 일괄 배부했으며, 책자 소진 시까지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받아 볼 수 있다.

책자에 게재된 지원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은 무주군청, 읍면 행정복지센



터 지정계시대 등 지역 곳곳에 게시된 현수막 QR코드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창대아이엔지, 무주군에 1000만원 고향사랑기부

(창대아이엔지가 지난 29일 무주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창대아이엔지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건설업체로 무주읍에서 수푸를 1차에 이어 2차 아파트를 조성 중이다. 지난 10월 무주군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성덕호 대표는 "오늘의 고향사랑 기부가 무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라며 "수푸를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모든 입주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기 내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벼 자가채종 종자 발아율 검사 무료 실시

진안군은 2026년, 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준비를 위해 벼 자가채종 종자에 대한 발아율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무료 검사는 우량종자 확보가 벼농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군은 정부 보급종 공급량 감소로 자가채종 종자를 다음 해에 사용하는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발아 불량 종자가 나올 우려가 있어, 벼 종자 파종 전인 오는 4월까지 발아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발아율 검사는 종자의 싹을 틔워 확인해 정상묘의 비율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정부 보급종의 경우 발아율 85% 이상일 때만 종자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법제 시료 500g(종이컵 3컵 분량)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4번을 반복 실험하여 도출한다. 검사 기간은 7~10일 정도가 소요되며, 신청량이 많을 경우 소요 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